

전후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스포츠 문화

- 재일조선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을 중심으로 -

조 정 민*

jungjung21@naver.com

〈 目 次 〉

- | | |
|-------------------|-----------------------|
| 1. 서론 - 전후일본과 스포츠 | 4. 역도산의 ‘일본인 되기’ |
| 2. 전후일본사회와 재일조선인 | 5. ‘링’ 위의 ‘일본인’ |
| 3. 의도된 은폐 | 6. 결론 -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

Key word : 역도산(Rikidozan), 남성성(masculinity), 프로레슬링(Professional wrestling), 재일조선인(Korean residents in Japan·Jainichi), 스포츠 내셔널리즘(Sports-Nationalism)

1. 서론 - 전후일본과 스포츠

패전 일본이 경험한 연합군 점령기는 전후일본사회를 탐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GHQ(General Head Quarter, 연합군 총사령부)의 개혁과 정책은 전후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준거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일본의 개혁을 주도하였던 미군(미국)은 전후일본의 정체성을 구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전후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상징하는 예는 1945년 9월 27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게재된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군복 차림으로 양 손을 허리 근처에 놓고 있는 맥아더 사령관과 모닝정장 차림으로 직립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히로히토 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일본근현대문화

황의 대비적인 모습은 거세된 패전 일본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전후일본은 미국과 대면함에 있어서 ‘여성’을 자처하였고, 그 가운데 만들어진 수직적이고 젠더적인 양자의 관계는 점령군 전용 성적 위안시설인 RAA(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일본인 창부, 소위 ‘팡팡’과 ‘온리’들에 의해 더욱 부각되었다.¹⁾

한편, 패전 후의 일본의 스포츠계는 비교적 빠르게 부활했다. 이는 패전의 상흔을 씻고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여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욕망을 대변한다. 다시 말하면 전후일본의 정체성은 위에서 언급한 여성성의 인식과 남성의 신체에 대한 동경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후일본은 미국에 의해 소실된 남성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는가, 그리고 남성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는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전후일본의 정체성 모색 과정을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탐구하는데 유효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패전 후의 스포츠계에 대해 확인해 두자. 패전 후의 일본은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극심한 물자부족,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운동 기구는 물론이고 시설과 장소도 제대로 갖추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일본의 스포츠는 오락의 일환으로 빠르게 부활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후일본의 스포츠 부활에 전후일본과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강력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후일본의 야구 부활은 피점령자 일본과 점령자 미국의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수입된 스포츠인 야구를 부활시킴으로써 대미전쟁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GHQ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이용하여 “야구를 통한 민주화” 실현을 꾀하였다.²⁾ 결국 GHQ는 ESS(Economic and Scientific

-
- 1) 전후일본의 사회상을 다룬 연구서, 예를 들면 존 다우어(2009) 『패배를 껴안고 -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민음사), 요시미 슌야(2008)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산치림), 조정민(2009) 『만들어진 점령서사 -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산지니) 등은 공통적으로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2) 이안 부루마는 전후 일본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매우 익숙지 않은 개념이었으나 ‘3S’ 즉, ‘섹스sex’, ‘스크린screen’, 그리고 ‘스포츠sport’에 의해 서서히 정착되었으며, 특히 야구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게임으로서 미국에 의해 적극 장려되었다고 지적하였

Section, 경제과학국)를 통해 전후일본의 야구 부활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이러한 점령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후일본의 대학야구 및 프로야구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또한 야구를 통한 미국과의 교류는 전전(戰前)의 귀족 미영(鬼畜米英)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전후일미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의 신체를 구사하는 스포츠의 부활은 패전의 기억을 망각시키는 기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4등 국민’이라는 굴절된 자화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프로레슬러 역도산(力道山)이 조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일본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성’ 복원에 대한 강렬한 희구가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 레슬러를 통한 자화상 재구상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당시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유통되었을 정도로 재일조선인에게는 ‘무법’, ‘악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선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후일본의 ‘남성성’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전후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에 관여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전후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 과정을 ‘역도산’이라는 인물과 신체 활동(프로레슬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후일본사회와 재일조선인

특정 개인의 생애에 대해 살펴 볼 때, 소위 ‘실제’적인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역도산의 경우에는 출생³⁾, 도일 배

다.(이안 부르마 지음, 최은봉 옮김(2004) 『근대일본』 을유문화사 p.136)

- 3) “공식적으로는 1924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1922년이라는 의견과 1923년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태어난 곳은 함경남도 홍원군 용원면 신흥리로 조용한 시골마을이었으며 이곳에서 김석태(金錫泰)의 3남 3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역도산은 스모를 시작하면서 새로 받게 된 이름이고 그의 본명은 김신락(金信洛)이다.” (고두현(2004) 『역도산 불꽃같은 삶』 스크린M&B p.15)

경4), 스모 선수시절의 민족적 차별이나 스승과의 관계⁵⁾, 프로레슬러로서의 활약 등에 대해 ‘사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기억’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역도산이 집필한 자서전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역도산은 ‘가라테 춤’으로 백인이나 흑인을 쓰러트려 심리적 공황에 빠져있던 패전 일본에게 용기를 준 ‘영웅’으로, 그는 ‘신화’적인 인물에 가깝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실존인물이지만 신화, 혹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기억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그러한 인물로 기억되고자 하는 욕망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역도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즉 조선에서 건너 온 레슬러에게 전후일본을 투영시키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저항이나 반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스노키 고우카쿠(楠弘閣)가 1939년과 1949년에 각각 실시한 ‘일본인 학생’의 ‘여러 민족’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39년에는 일본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만주인에 이어 조선인은 호감도 5위를 차지하고 있었으

-
- 4) “씨름대회에 종종 구경하러 왔던 모모타(百田)라는 일본인이 이 소년(역도산)을 주목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스모 선수로 키울 생각이었다.”(무라마쓰 도모미 지음, 오석윤 옮김(2004) 『조선청년 역도산』 북@북스 p.292)
 “김신락이 17살 되던 봄 경성에서 열린 씨름대회에 출전했을 때 구경꾼이었던 오가타 도라이치라는 조선총독부 소속의 경부보의 권유를 받아 김신락은 자신이 동경하던 일본으로 건너갔다.”(石井代藏(1980) 『巨人の素顔』 講談社 pp.166-167)
- 5) “스모의 최고자리인 요코즈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세키와제의 자리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그가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마침내 민족적 차별과 까닭 없는 멸시에 대한 분노로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상투를 식칼로 잘라 버리고 스모계를 떠났다.”(무라마쓰 도모미 지음, 오석윤 옮김(2004) 『조선청년 역도산』 북@북스 pp.292-293)
 “요코즈나를 꿈꾸었던 17살의 청년 김신락은 민족차별과 조국의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다나가 게이코 지음, 한성례 옮김(2004) 『내 남편 역도산』 자음과 모음 p.34)
 “그 이유(스모 중단)에 관해서는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으나 단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내가 배반당했다는 사실과, 협회의 물인정한 냉대를 받은 점에 분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종전 후의 어려운 사회형편으로 해서 협회 운영의 곤란함이 따르고 있음은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나 ‘폐 디스토마’에 걸려 죽음과 삶의 경지에 도달한 선수에게 협회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다.(……)그러니까 내가 역사(力士) 생활을 포기한 직접적인 동기는 단 한 가지뿐으로 그것은 씨름협회에 있다고 단정하고 싶다.”(역도산 김신락 지음, 이광재 옮김(1966) 『인간 역도산』 청구출판사 p.30)

나, 1949년에는 15위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패전 후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표면적인 구호의 상실과 재일조선인 관련 사건이 다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4월 고베(神戸) 소재 조선인 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데모로 미군이 비상사태 발령, 1949년 2월 무장 경찰 1200명이 밀주 혐의로 아마가사키시(尼崎市) 모리베(守部) 부근의 조선인 촌락 급습, 같은 해 4월 도쿄(東京) 고토구(江東区)에서 암거래 및 절도로 조선인 체포, 같은 해 9월 조선연맹(이하 조련) 등 네 개 단체에 대한 GHQ의 해산 명령 등, 연이어 일어난 재일조선인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인은 ‘무법’, ‘악당’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⁶⁾

이는 1951년,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가 도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족’에 대한 태도 조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 등의 구미인은 가깝게 느끼는 반면, 호주인, 러시아인, 조선인, 흑인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조선인의 경우에는 ‘불결하다’, ‘문화적으로 저급하다’, ‘교활하다’,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을 증오한다’, ‘추악하다’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시각이 압도적이었다.⁷⁾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일관되는 가운데, 북한계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는 한층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묘사되었다. 예를 들면, 1949년 8월 조련의 해산과 관련하여 도쿄의 다이토회관(台東會館)이 압수되는 과정에서 조선인과 경찰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발생하는데, <시사신보(時事新報)>는 이를 “일본에서 항상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과 관련이 있는 과거 조련계 조선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1950.3.22)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재일조선인에 의한 사건, 사고를 북한계 재일조선인의 소행으로 간주하는 기사는 각종 신문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⁸⁾

6) 정대균(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pp.17-18

7) 정대균(1999) 앞의 책 pp.19-22

8) 북한계 재일조선인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요사건) 배후에는 북조선계’(〈아사히신문〉 1951. 2. 8), ‘아쓰기(厚木)에서 북조선 조선인 소동을 일으키다’(〈마이니치신문〉 1951. 11. 26), ‘오사카에서 구 조련계 소동을 일으키다 특수경찰 수 곳에서 폭행’(〈마이니치신문〉 1951. 12. 17), ‘일본에 잠적하고

이와 같이 전후일본이 인식한 조선인, 재일조선인의 인상은 일관되게 부정적이었고, 스테레오 타입의 민족적 편견은 언론에도 그대로 등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전후일본과 역도산은 서로 대립각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북한계 재일조선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역도산에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역도산은 천황 다음으로 유명한 전후일본의 ‘영웅’으로 존재했다.

과연 전후일본이 조선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에게 스스로를 투영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 역도산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 있었을까. 전후일본이 역도산의 신체를 매개로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 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 의도된 은폐

사실 역도산이 프로레슬러로 데뷔하기 이전부터 다수의 일본인이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고 있었다. ‘유도의 귀신’이라 불리는 기무라 마사히코(木村政彦)를 비롯하여 역시 유도 선수 출신의 야마구치 도시오(山口利夫), 스모 선수 출신의 오노 우미(大ノ海), 후지타 야마(藤田山) 등은 대표적인 프로레슬러이다. 그 가운데 유독 조선인 레슬러 역도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오로지 그만 기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역도산의 출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런데 실제로 역도산이 조선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식이었는지는 증명하기 힘들다. 구리타 노보루에 의하면, 어릴 적 이름이나 출신학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아무도 역도산 본인에게 물으려 하지 않았다고

있는 적색 조선인 3만인의 테러단 일본공산당과 김일성이 지령'(〈요미우리신문〉 1952. 3. 30.), ‘(외국인)등록을 거부하는 북조선계 실력투쟁을 경계’(〈요미우리신문〉 1952. 10. 8.), ‘(외국인)등록거부에 정부는 강경, 높아만 가는 북조선계의 대중동원에 대한 대책’(〈요미우리신문〉 1952. 10. 20)등. 이처럼 북한계 재일조선인이 소란사건의 원흉으로 그려지는 기사는 연일 각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한다. 후배 스모 선수조차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혼혈’이라고 믿고 있었다. 역도산을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 금기였다.⁹⁾ 하지만 이러한 증언은 역도산이 조선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사실을 선후배정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¹⁰⁾라는 진술과 대치된다.¹¹⁾ 역도산이 프로레슬러로서 인기를 구가하던 1955년경, 이미 “역도산은 조선인이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는 이도 있고¹²⁾, 프로레슬링의 경기방식이나 역도산이라는 인물 모두가 ‘가짜’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다.¹³⁾ 그리고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역도산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비교적 상식으로 통하고 있었다.¹⁴⁾

역도산의 출생에 관한 혼돈과 착종은 미디어 보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역도산이 스모 선수를 은퇴할 때,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본명을 모모타 미쓰히로(百田光浩)로 소개하고 나가사키현(長崎県) 출신이라고 보도하였다.(1950.9.13) 뿐만 아니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모두 역도산이 나가사키현 오무라시(大村市)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1963.12.16) 이와 같이 역도산은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 태어나 스모와 프로레슬링 선수로 활약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1963.1.8 방문), 도쿄주니치신문(東京中日新聞)은 역도산이 방문한 곳이 다름 아닌 그의 ‘모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1963.1.9) 이처럼 역도산이 살아있던 당시, 역도산이 누구이며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기 상이했다.

역도산의 출생이 분명하게 규정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죽은 뒤였다. 그의 생애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주변인들의 기억과 증언에 의해 의 본격적으로

-
- 9) 구리타 노보루 지음, 윤덕주 옮김(2004) 『인간 역도산』 엔북 p.25
 10) 大下英治(2004) 『力道山の真実』 祥伝社 p.34
 11) 구리타 노보루가 『인간 역도산』에서 회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도 일관되지 않은 기술은 자주 보인다. 구리타는 역도산의 출생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역시 같은 책에서 “역도산의 조국은 당시 조선이지만, 그런 사실은 아무래도 좋았다. 일본을 전쟁에서 이긴 ‘양놈’들 그리고 ‘검둥이’들을 때려눕히는 위대한 영웅을 일본인들은 동포로 여기고 싶어 했다.”(p.26)고 서술한다. 이 문장을 보면,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역도산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를 일본인으로 여기고 감정이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12) 村松友視(2001) 『力道山がいた』 朝日新聞社 p.271
 13) 村松友視(1980) 『当然プロレスの味方です』 情報センター出版局 p.86
 14) 이순일 지음, 육후연 옮김(2000) 『영웅 역도산』 미다스북스 pp.73-79

복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73년 사노 미쓰오(佐野美津男)는 잡지 『아사히 저널(朝日ジャーナル)』(1973.4)을 통해 역도산이 조선인이었음을 입증하려 했다. 이어 1977년 우시지마 히데히코(牛島秀彦)는 잡지 『우시오(潮)』(8월, 9월호)에서 역도산의 ‘진실’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이후에도 우시지마는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층해류의 역도산(深層海流の力道山)』(徳間文庫, 1983), 『역도산-스모·프로레슬링·사회 뒷면(力道山—大相撲・プロレス・ウラ社会)』(第三書館, 1995)을 출판했다. 또한 이시이 다이조(石井代蔵)도 『거인의 진정한 얼굴(巨人の素顔)』(講談社, 1980)이라는 저서를 통해 역도산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려 했다.

이처럼 역도산은 생존 시에는 드라마나 TV 중계, 영화를 통해 신화화, 영웅화되었지만 사후에는 출생의 ‘진실’과 ‘사실’을 추궁 당했다. 이러한 대비는 역도산이 생존하던 시절, 엄밀히 말하면 프로레슬러로 활약하던 시절, 전후일본 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역도산의 출생, 본적지가 아니라, 오로지 ‘일본인 역도산’이었던 사실을 말한다. 즉 전후일본은 역도산을 통해 점령자 미국인에 대한 굴절된 감정을 발산하고, 나아가 지난날의 패배를 설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역도산의 신체를 통해 건강한 ‘남성’ 일본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환영을 보았던 것이다.

프로레슬러 역도산, 그 이름은 지금 소년들에게 역사 속의 인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는 1963년 12월 15일에 이르는 10년 동안 위대한 영웅이었다. 링 위의 역도산은 막판이 되면 ‘가라테 춤’을 휘둘러 ‘점령군’인 백인이나 흑인을 두들겨 뺐고, 그들이 힘없이 경기를 포기하면 일본 전국이 열광하며 “맛이 어떠냐, 이놈들아!”하고 속 시위해했다. 역도산은 ‘일본의 빛나는 별’이었다.¹⁵⁾ (밑줄: 인용자)

프로레슬링 관계자들뿐 만 아니라 일본 각계의 지도자급 인사들까지 역도산은 일본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같이하게 된 것은 역도산이 미국 프로 레슬러들에게 거둔 승리는 곧 일본이 미국에게 거둔 승리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려는 뜻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도산도 ‘일본의 영웅’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임을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인 행세를 했다.¹⁶⁾ (밑줄: 인용자)

15) 구리타 노보루 지음, 윤덕주 옮김(2004) 『인간 역도산』 엔북 p.24

16) 고두현(2004) 『역도산 불꽃같은 삶』 스크린M&B pp.365-366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후일본은 일본과 미국의 대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역도산의 경기를 해석하였고, 역도산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소유하고자 하였다. 역도산의 진가도 미국인 프로레슬러와 대결할 때 더욱 그 빛을 발하였다. “빨간 머리 파란 눈, 가슴에도 배에도 털수룩하게 털이 나 있고, 일본인 몸통만한 허벅지, 떡 벌어진 어깨와 식빵을 집어넣은 듯한 팔의 근육,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인을 때려잡은 미국인의 전형”과 작은 동양인 역도산의 대결은 미국과 일본의 인종 대결로 그대로 슬라이드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날 아사히신문의 사진(1945.9.27)에서 볼 수 있었던 강하고 힘센 미국(맥아더 사령관)과 무력하고 왜소하며 긴장하고 있는 일본(히로히토 천황)이라는 구도는 역도산을 통해 비로소 전복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의해 거세된 패전일본은 역도산의 경기를 통해 건장한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도산이 전후일본을 대신하여 처음으로 링에 오른 것은 1951년 10월 28일 로, 상대선수는 역시 미국에서 온 바비 브룬스(Bobby Bruns)였다. 당시의 역도산은 트레이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테 춤이라는 필살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이 경기는 GHQ의 윌리엄 머컷트 소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회사업단체 ‘토리이 오아시스 슈라이너스 클럽(Torii Oasis Shriner’s Club)’이 미군 위문과 지체장애자 성금모금을 위하여 마련한 경기로서 관중도 대부분 미국인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역도산은 바비 브룬스와 대결하여 무승부를 기록했다. 역도산은 그 후 약 1년간 미국에서 수행을 한 뒤, 1954년 2월 19일 미국의 샤프 형제와 대결하게 된다. 샤프 형제와 역도산 그리고 기무라 마사히코는 태그 매치에서 3연전을 벌여 2대 1로 승리한다. 이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를 보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이가 있을 정도로, 역도산은 일본의 미국 제압이라는 흥분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유도의 귀신이라 불리던 기무라 마사히코도 역도산의 저돌적인 경기 방식 때문에 존재감을 잃게 되었다. 역도산이 전후일본의 프로레슬링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당시의 일본은 1951년 9월 8일에 미일안전보장조약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를 뒤인 9월 10일에는 구로사와 아키라(黒沢明)의 영화 『라쇼몽(羅生門)』(1950)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

리를 수상하며 국제 사회에 일본의 건재함을 호소하려던 시기였다. 또 1952년 5월 19일에는 프로복서 시라이 요시오(白井義男)가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하여 ‘강인한 일본’을 체현시키기도 했다. 특히 그의 상대가 미국인 살바도르 다도 마리노(Salvador Dado Marino)였던 점과 두 사람의 대결이 일본 고라쿠엔 구장(後樂園球場)에서 펼쳐졌던 점은, 시라이의 활약과 성적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일본인 남성의 신체를 통해 전후일본의 남성성 획득과 부활을 알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52년 7월 헬싱키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이시이 쇼하치(石井庄八)가 소련의 괴력 선수 마메데코프를 누르고 밴텀급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들 수 있다. 패전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올림픽에 복귀한 일본에게 이시이는 첫 금메달을 안겨준 썬인데, 그러한 만큼 전후일본은 이시이의 금메달을 패전의 극복과 회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역도산의 신체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의 연속선에 놓여진 것이었다. “역도산의 ‘성난 가라테 춤’이 백인들을 퍽퍽 쓰러트리는 장면을 보면서 어른들은 연합군의 점령 하에 쌓인 불만을 폭발시켰고 청소년들은 용기를 얻었다”.¹⁷⁾

전후일본은 역도산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봉인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피식민자를 통한 전후일본의 남성성의 회복은 또 다른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3등 국민인 조선인, 대만인보다 못한 4등 국민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후일본이 역도산을 대상화시켜버린다면 자신들의 ‘남성성’ 회복도 동시에 포기해야 한다. 역도산이 생전에 ‘허구’의 ‘일본인’으로 존재하고, 사후에 ‘실제’적 ‘조선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4. 역도산의 ‘일본인 되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일본은 역도산을 ‘일본인’으로 조형하여 신화,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역도산의 강인한 신체와 성공담을 소유

17) 구리타 노보루 지음, 윤덕주 옮김(2004) 『인간 역도산』 엔북, pp.82-83

하는 가운데 ‘남성성’ 회복을 기도하였다.

그렇다면 역도산 자신은 어떠한 존재이고자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도산 역시 ‘일본인’이고자 하였으며, 일미대립 상징극의 주인공이고자 했다.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모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그는 이번에는 프로레슬링을 통하여 ‘일본인 되기’에 성공한다. 물론 역도산이 성공적으로 일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프로레슬링이라는 장르)을 도구화 하였기 때문이며, 적어도 프로레슬링이 이루어지는 무대(링) 위에서는 전후일본과 역도산의 극복 대상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먼저 역도산의 ‘일본인 되기’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1940년 2월 역도산은 니쇼노세키 베야(二所ノ関部屋)에 입문한 뒤, 다음 해 11월 다마노우미(玉ノ海) 오야카타(親方)의 주선으로 나가사키현 오무라초의 모모타 기노스케(百田己之助)의 양자로 입적하여, 호적상으로는 일본인 모모타 미쓰히로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스모 선수시절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역도산은 ‘일본인’이 아니라 여전히 ‘조센징’에 지나지 않는 풋내기 선수였다. 스모 선배들은 역도산을 ‘오이! 킹, 킹’이라고 불렀다. 본명이 김신락이었기 때문에 ‘킹’이라고 부른 것이지만, 거기에는 ‘조센징’에 대한 멸시의 뜻도 담겨있었다.¹⁸⁾

조선인 출신은 ‘요코즈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들으면서도¹⁹⁾ 누구보다 일본인으로 살고 싶어 했고, 일본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역도산은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의 패전을 어떻게 느꼈을까. 말하자면 일본의 패전은 역도산에게 ‘해방민족’, ‘전승민족’의 지위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그 때문인지 역도산은 패전 후에 제멋대로 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한다.²⁰⁾ 이 시기 역도산은 ‘인디언’이라는 미국제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패전 후의 사회적 혼란과 식량 부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일개 스모 선수가 최고급 미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꺾음을 요란하게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탄 역도산은 기모노가 아닌 양복을 입고 있었고, 변찍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때로는 알로하셔츠, 가죽점퍼

18) 고두현(2004) 『역도산 불꽃같은 삶』 스크린M&B p.28

19) 다나카 게이코 지음, 한성례 옮김(2004) 『내 남편 역도산』 자음과 모음 p.56

20) 이순일 지음, 육후연 옮김(2000) 『영웅 역도산』 미다스북스 p.67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기도 했다.²¹⁾ 특히 화려한 무늬의 알로하셔츠는 미국의 피점령지였던 전후일본에서 패션의 일종으로 단순하게 해석되지 않았다. 그것은 친미적 성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준거였다.²²⁾ 역도산의 알로하셔츠 차림은 ‘해방민족’, ‘전승민족’의 거만함, 패전 일본에 대한 멸시로도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돌연 그는 ‘존마게’라 불리는 스모 선수의 상징인 상투를 잘라버리고 선수 생활을 중단한다. 스모 선수가 존마게를 자르는 것은 은퇴한다는 의미인데, 은퇴하는 선수의 존마게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승이 잘라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역도산은 스스로 존마게를 자르고 스모계를 떠났다. 역도산의 돌발적인 행동을 두고 주변에서는 민족적 차별, 건강악화, 스승 다마노우미와의 불화, 스모협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추측했지만, 역도산 자신은 스모협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단언했다.²³⁾ 이는 역도산 스스로 출생 및 민족적 차별 문제를 자기 검열을 통해 봉인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드디어 연합국의 점령에서 독립하게 된다. 영웅 역도산의 탄생은 일본의 독립시기와 맞물린다. 1951년 10월, GHQ의 윌리엄 머컷트 소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회사업단체 ‘토리이 오아시스 슈라이너스 클럽(Torii Oasis Shriner’s Club)’은 미군 위문과 지체장애자 성금모금을 위하여 프로레슬링경기를 준비한다. 이때 신바시(新橋)의 나이트클럽에서 역도산은 하와이 일본계 2세인 헤롤드 사카다를 만나 프로레슬러의 길을 권유받고, 1952년 2월 도미하여 수행한 후 다음해 3월 귀국하여 드라마, 신화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역도산은 하와이 등, 미국에서 연습과 시합을 거듭하면서, 프로레슬링을 통해 인종적 대립을 극대화시켜 관객들을 자극시키고, 결과적으로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터득한 것 같다. 아직 진주만 공격과 같은 전쟁의 기억이

21) 大下英治(2004) 『力道山の真実』祥伝社 p.32; 이순일 지음, 육후연 옮김(2000) 『영웅 역도산』 미다스북스 p.70

22) 石井弘義·藤竹暁·小野耕世(1981) 『日本風俗じてん・アメリカンカルチャー①』三省堂 pp.45-48

23) 주5 참조.

선명하던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계 레슬러가 등장하면 가차 없이 야유를 퍼부었고, 그러한 악역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레슬링은 인기를 모을 수 있었다. 흥행과 수입이 직결되는 프로레슬링의 성격 때문에 일본 레슬러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악역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전장의 기억을 역이용하여 미국인의 적개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일본이 가지는 악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이름을 가지고 있던 일본계 레슬러들도 링 위에서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도고 헤이치로(東郷平八郎)를 떠올리게 하듯, ‘그레이트·도고’로 명명하거나, 도조 히데키(東条英機)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를 섞어 ‘도조·야마모토’ 등으로 바꾸어, 미국인에게 전쟁의 상흔과 아픔, 복수심을 자극했다. 일본계 레슬러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계의 레슬러들도 전략적으로 일본인 레슬러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⁴⁾ 중남미, 사모아, 독일 출신의 선수들도 그들의 캐릭터가 인종적 편견에 수렴되도록 연출했고,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선수들조차 차별적인 캐릭터 구축을 위해 전략적으로 독일인 악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한스 슈미트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었지만 독일인으로 분장하여 링 위에 올랐고, 프리크 본 에릭은 미국 네브레스카 주 출신이었지만 머리를 깎고 독일어 액센트를 쓰며 악역을 자처했다.²⁵⁾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인종적 대결 구도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역도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종적인 대결 구도를 역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악역을 연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역도산은 오히려 미국을 악역으로 상징하고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패전 일본의 신체를 부활시키는 상징극 시나리오에 충실하고자 했다. 전쟁 중에는 수용소에 가두어지고, 패전 후에는 굴욕과 모멸감에 사로잡혀 주눅 들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히와이의 일본계 사람들은 역도산이라는 영웅의 등장에 환호를 보냈다.

역도산의 피니시 기술인 가라테 춤도 역도산과 전후일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프로레슬링의 다양한 기술은 선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모든 선수가 고유의 기술을 적어도 하나씩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²⁶⁾ 역도산의 가라테 춤은

24) 大下英治(2004) 『力道山の真実』 祥伝社 p.10

25) 성민수(2005) 『프로레슬링 흥행과 명승부의 역사』 살림출판사 p.28

스모 기술을 변형시킨 것으로 화려한 기술은 아니지만 일본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가라테 춤은 역도산이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그가 무엇을 위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지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유 기술의 구사는 관중과 선수와의 정념적 차원의 소통을 전염병 처럼 확산시킨다. 공방을 주고받으며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관중들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피니시 기술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이 피니시 기술이 등장하는 순간 관중의 환호성은 더욱 거세지며 경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도 예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관중과 선수는 인지적, 정념적, 실행적 차원에서 소통하게 된다.²⁶⁾ 역도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관중들은 가라테 춤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가라테 춤이 악의 상징인 미국을 공격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가운데 전후일본과 역도산은 감정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역도산의 경기를 통한 전후일본의 남성성 회복은 바로 ‘링’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징극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대결구도는 역도산이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도 자주 펼쳐졌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54년 8월 4일에 펼쳐진 한스 슈너벨, 뉴먼과의 태그 매치이다. 슈너벨과 뉴먼은 태평양 해안 태그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슈너벨은 로스앤젤레스 시합에서 멕시코 선수를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란 별명이 붙어 있었다. 뉴먼 역시 괴력의 소유자였다. 일본인들은 이 새로운 적에게 역도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역도산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하고 또 기대했다.

슈너벨과 뉴먼 팀은 예상보다 훨씬 난폭하고 거칠었다. 그들은 경기 초반부터 역도산의 파트너 스루가우미(駿河海)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역도산의 허벅지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경기장를 채우고 있던 일본인들이 분노를 터트리기 시작했다. 링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빈병이나 의자를 던지기도 했다.²⁸⁾ 일본인들의 과도한 감정 표출과 흥분은 신문에도 보도될 정도였다.

26) 송치만(2006)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미국 프로레슬링 WWE의 기호학적 접근』,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월인 p.349

27) 송치만(2006) 앞의 글 p.351

28) 이순일 지음, 육후연 옮김(2000) 『영웅 역도산』 미다스북스 p.133

우승컵은 슈너벨과 뉴먼 조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 후에 ‘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중들이 링을 둘러싸고 소동을 벌여 장내는 잠시 동안 대혼란에 빠졌다. 퇴장하려고 할 때 수명의 관객이 링에 올라가고, 동시에 천 명 가까운 관중이 일제히 링 아래로 모여들어, 우승컵을 든 사람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경관 수십 명이 달려와 해산시키려고 하자, 흥분한 관중은 경관에게 의자를 던지며 ‘요금을 돌려 달라.’고 고함쳤다. 소동은 약 30분간 이어졌는데, 관리인이 장내의 전등을 끄고 소란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9시 40분 경에 겨우 잠잠해졌다.²⁹⁾

미국의 슈너벨과 뉴먼 팀에 맞선 역도산은 첫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그는 이들 미국을 가라테 초급으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한 달 후인 9월 10일, 1만 5천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도산은 미국인 악역 슈너벨과 뉴먼을 누르고 태평양 해안 태그 챔피언이 된다. 미국인을 제압한 역도산의 승리로 일본 전역은 열광하고 흥분했으며 역도산의 이러한 영웅적 이미지와 서사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갔다.³⁰⁾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도산의 경기와 활약을 곧 양국 간의 전쟁의 재현물이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역도산이 쟁취한 승리를 전후일본의 승리와 부활로 치환시켜 사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의 대립, 혈투, 난타전, 육탄전, 가라테 춤, 극적인 승리 등으로 구성된 프로레슬링 시나리오를 통해 전후일본은 패전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고 단단한 육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역도산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경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를 통해 부유하던 역도산은 ‘일본인’으로 호명되었고, 역도산 자신도 비로소 ‘일본인’으로 안주할 수 있었다. 전후일본은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 관전을 통해

29) <마이니치신문> 1954. 8. 9

30) 이와 관련하여 요시미 슌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현해탄을 건너 온 김신락(역도산의 본명)은 일본의 적국이자 점령자, 그리고 보호자이기도 했던 미국에 대한 굴절된 감정을 텔레비전 화면에 교묘하게 형상화해서 드러낸 것이다. 오사카나 규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전후의 다른 프로레슬러가 프로레슬링을 격투기 이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데 반해, 역도산은 프로레슬링이 텔레비전 앞에 모인 수백만 명의 관중들을 향해 연출되는 내셔널한 상징극임을 감지하고 있었다.”(요시미 슌야 (2008)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 전후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산처럼 pp.202-203)

일미관계를 상징하는 ‘시각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국민적 기억을 구성해 나갔던 것이다.³¹⁾

5. ‘링’ 위의 ‘일본인’

그런데 주의 할 점은 반미(反美) 상징극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과정에 ‘미국(적인 요소)’이 지대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유하던 역도산의 정체성이 일본인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시기는 패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시기와 맞물린다. 굴욕적이고 억압적인 피점령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새로운 전후일본을 상징할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에 역도산이 등장한 것이다. 패전과 피점령의 상흔이 아물지 않았을 때, 그러나 다시 강력한 일본을 욕망해야 할 때, 그러한 서사를 대변하고 체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역도산이었다.

역도산의 탄생에서 ‘미국(적인 요소)’의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프로 레슬링이라는 장르는 다른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이다. 역도산은 미국적인 스포츠로 미국을 극복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역도산의 후원자 닷타 신사쿠(新田新作)도 GHQ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는데, 반미 상징극 운영의 바탕이 미국을 통해 거두어진 자본이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할 수 있다.³²⁾ 또한 링 밖에서

31) 스포츠 관전이 가지는 시각적 의미와 내셔널리즘과의 상관에 대해서는 山本敦久(2010) 『スポーツ観戦のハビトゥス-人種化された視覚の場と方法論的ナショナリズム』, 『スポーツ観戦学』世界思想社 pp.256-279 참조.

32) 닷타 신사쿠, 그는 행운의 별을 타고난 쾌남아였다. 2차 대전 중에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미군 포로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는 생각에 헌병 대위였던 수용소장의 눈을 속이고 담배나 과자처럼 일본사람들도 좀처럼 손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을 포로들에게 주었다. 일본이 전쟁에 져서 그 포로들 중 몇 명이 연합군 총사령부의 고급장교가 되자 닷타 회장에게 운이 찾아왔다. 연합군 총사령부의 휘트니 소장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로 폐허가 된 자리를 정비하는 사업이나 미군기지 건설을 닷타 회장에게 시켜서 그 은혜에 보답했다. 모든 일이 연합군 총사령부가 관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서 척척 나와서 회장집의 방에 돈뭉치가 그냥 쌓여 있을 정도였다. 그 돈의 일부는 정계의 보스들에게도 인신 총계 뿌려졌다.(구리타 노보루 지음, 윤희주 옮김(2004) 『인간 역도산』 엔북 p.55)

역도산은 셔츠 위에 체크 재킷을 입는 미국식 캐주얼 차림을 즐겼고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는 GM의 식기 세척기, 건조기, 온장고 등 미국제 품을 구비하고 있었고³³⁾, 골프장, 모터스포츠용 서킷 제작, 프로레슬링 전용 경기장 겸 스포츠 센터 건립(리키 팰리스), 건설(리키 맨션) 등의 사업 구상에 있어서도 미국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⁴⁾ 링 위에서는 미국인을 쓰러트리며 전후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이 가진 가치체계가 전복되었음을 느끼게 만드는 역도산이었지만, 링 밖의 그의 생활은 전형적으로 미국화(Americanization)된 것이었다. 미국을 굴복, 궤멸시키며 스스로에게 전후일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신적인 존재로 우뚝 선 역도산이었지만, 이러한 신화가 링 안에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말하자면 역도산은 링 위에 있을 때 ‘일본인’으로 호출, 호명되었고, 역도산 자신도 링 위와 링 밖을 구분하여, 링 안에서만큼은 ‘반미’를 주장하는 ‘일본인’으로 철저하고자 했던 것이다.

역도산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에 대한 극복(링 위)과 선망(링 밖)이 ‘링’을 경계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가성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역도산이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각종 가전제품을 구비한 것처럼, ‘삼종의 신기’라고 불리는 세탁기, 냉장고, 흑백텔레비전(실제 역도산은 흑백텔레비전 광고 모델이기도 했다)은 편리, 합리, 풍요를 대변하는 가운데 각 가정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었다. 또한 각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미국 홈드라마를 통해 미국식 생활과 문화를 접하고, 무의식중이라 하더라도 전후일본이 이를 모방, 재구성하여 일상의 모델로 삼았음은 부정할 수 없다.³⁵⁾ 이렇듯, 당시

33) 다나카 게이코 지음, 한성례 옮김(2004) 『내 남편 역도산』 자음과 모음 p.161

34) “일본은 이제부터 더욱더 발전하여 틀림없이 미국과 같은 사회가 될 거야. 골프 붐, 맨션 붐, 고속도로 건설 러시 등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뒤쫓아 갈 것이고 어쩌면 앞지를 지도 몰라. 나는 그것을 미국에서 직접 체험했어. 그래서 앞장서려고 해. 꿈을 실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고.”(다나카 게이코 지음, 한성례 옮김(2004) 『내 남편 역도산』 자음과 모음 p.183)

35) 1950년대 후반, 일본사회에서 유행한 대표적인 미국 홈드라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パパは何でも知っている>(Father Knows Best, NTV, 1958년 8월 방송 개시)
- <ビーバーちゃん>(Leave it to Beaver, NTV, 1959년 1월 방송 개시)
- <うちのママは世界->(The Donna Reed Show, 후지TV, 1959년 3월 방송 개시)
- <アイラブルーシー>(Love Lucy, NHK, 1959년 4월 방송 개시)

전후일본사회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타자는 정복의 대상인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방송사 니혼 TV는 1958년부터 격주로 금요일 8시에 프로레슬링을 중계하기 시작하는데, 프로레슬링 중계가 없는 주의 금요일 8시에는 ‘디즈니랜드’가 방영되었다. 이 같은 편성은 미국에 대한 전후일본의 양가적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후일본과 역도산이 민족이라는 정체성 문제로부터 초월하여 ‘미국을 극복한 전후일본’, ‘남성성을 회복한 건장한 전후일본’이라는 단일한 표상과 서사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링’이라는 연출된 무대와 ‘가짜’ ‘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프로레슬링이라는 장르를 매개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산이 ‘링’을 벗어나면 그의 민족적 정체성 문제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역도산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던 닷타 신사쿠는 전후일본의 영웅은 반드시 일본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역도산이 미국에서 수행 중일 때, 닷타는 전 요코즈나 아즈마 후지(東富士)를 내세워 역도산을 견제하고 그를 중심으로 다른 신설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 단체의 회장으로는 닷타가 내정될 예정이었다. 뒤늦게 알게 된 역도산이 손을 썼기 때문에 그 구상은 백지화가 되었지만,³⁶⁾ 조선인 출신의 프로레슬러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와 배타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후일본과 역도산은 오로지 프로레슬링과 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동일한 이즘을 구가할 수 있었다.³⁷⁾

· <なにしてんのパバ>(<The Dennis O'Keefe Show>, TBS, 1960년 7월 방송 개시)

36) 이순일 지음, 육후연 옮김(2000) 『영웅 역도산』 미다스북스 p.150

37) 요시미 순야는 역도산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 ‘미국’을 가라테 춤으로 때려눕히는 ‘일본’이라는 퍼포먼스, 한반도 출신자가 연기하는 ‘일본인’이라는 퍼포먼스, 이러한 신체에 의해 점령기 아메리카니즘이 체현되어가는 퍼포먼스 등 여러 겹의 문화적 의미가 중첩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요시미 순야, 앞의 책, p.205) 이와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역도산의 민족적 정체성이 봉인, 해제되어 가는 과정이 전후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링’이라는 무대를 경계로 ‘미국’ 재현의 양가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자 했다.

6. 결론 -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본 논문에서는 전후일본이 전쟁의 상흔과 패전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포츠(프로레슬링)를 어떠한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을 전후일본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포섭한 배경에 주목하였다. 전후일본은 미국에 의해 소실된 ‘남성성’을 복원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조선인 레슬러 역도산의 신체를 욕망하고 전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인 레슬러를 통한 자화상 구축은 조선인 역도산의 민족적 정체성을 봉인하고 은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기에, 역도산을 통한 전후일본의 정체성 회복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전후일본이 안심하고 ‘일본인 역도산’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선인 역도산’이 안심하고 전후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은 다름 아닌 ‘링’이라는 ‘가짜’ ‘쇼’ 무대였다. 역도산의 경기를 곧 일미대전의 재현물이라 생각하고, 역도산이 쟁취한 승리를 전후일본의 승리와 부활로 치환시켜 사유하는 것은 오로지 ‘링’이라는 ‘허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역도산의 신체는 전후일본이 욕망한 자화상을 구축하는 동시에 와해도 함께 표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역도산은 국민국가, 일국사 안에 갇힐 수 없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전후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에서 ‘국민적 영웅’으로서 이야기 되는 것 역시, 그의 신체가 국민국가 안에 안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⁸⁾

전후일본의 욕망을 대변하는 신체로서 역도산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후일본과 대항하며 전후일본을 상대화하는 인물로서 역도산을 사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지닌 가능성도 함께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38) 역도산이 가진 기억의 복수성에 관한 최근의 논고로서는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동아시아 기억의 장소로서 力道山』(『역사비평』 통권95호, 2011.5)이 있다.

〈参考文献〉

- 고두현(2004) 『역도산 불꽃같은 삶』 스크린M&B pp.1-446
- 구리타 노보루 지음, 윤덕주 옮김(2004) 『인간 역도산』 엔북 pp.1-395
- 다나카 게이코 지음, 한성례 옮김(2004) 『내 남편 역도산』 자음과 모음 pp.1-243
- 무라마쓰 도모미 지음, 오석윤 옮김(2004) 『조선청년 역도산』 북@북스pp.1-362
- 성민수(2005) 『프로레슬링 흥행과 명승부의 역사』 살림출판사 p.28
- 신현숙·박인철 편(2006)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월인 p.349
- 역도산 김신락 지음, 이광재 옮김(1966) 『인간 역도산』 청구출판사 pp.1-264
- 요시미 순아(2008)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산처럼 pp.1-269
- 이순일 지음, 육후연 옮김(2000) 『영웅 역도산』 미다스북스 pp.1-320
- 이안부르마 지음, 최은봉 옮김(2004) 『근대일본』 을유문화사 p.136
-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2011) 『동아시아 기억의 장소로서 力道山』 『역사비평』 통권 95호 pp.127-160
- 정대균(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pp.17-22
- 조정민(2009) 『만들어진 점령서사 -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산지니 pp.1-291
- 존 다우어(2009) 『패배를 껴안고 -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민음사 pp.1-860
- 大下英治(2004) 『力道山の真実』 祥伝社 p.10
- 石井代蔵(1980) 『巨人の素顔』 講談社 pp.166-167
- 石井弘義·藤竹暁·小野耕世(1981) 『日本風俗じてん・アメリカンカルチャー①』 三省堂 pp.45-48
- 橋本純一編(2010) 『スポーツ観戦学』 世界思想社 pp.256-279
- 村松友視(1980) 『当然プロレスの味方です』 情報センター出版 p.86
- _____ (2001) 『力道山がいた』 朝日新聞社 p.271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The Nationalism and The sport of Postwar Japan
: Focuses on Korean-Japanese wrestler Rikidozan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 of Japan's identity construction and sports culture after the war. The rhetoric which treats especially a Korean pro wrestler Rikidozan's body as representation of Japan was observed. This is performed in order to restore the masculinity lost by the America.

However, it is inconsistency to build an identity of Japan through a Korean wrestler's body, and it is fabrication. The place where Japan can enjoy Rikidozan's body was only a made-up stage called a ring. Japan considered that the game of Rikidozan is the representation of Japan-America waging war. It was considered that Japan was a victory of Japan about the victory of Rikidozan failing in accepting it. However, recovery and a victory of such the body are only the fabrication performed on the ring.

And the fact that Rikidozan was a Korean was a taboo while Rikidozan was valid. It is because a symbol of Japan will also collapse after the war if the fact is clarified. It was his postmortem that the life of Rikidozan began to become clear.

Rikidozan was called after the war for Japan's identity construction, and actually produced the effect. But it was realized, after carrying a made-up genre called professional wrestling and sealing racial traits. Japan's Rikidozan interpretation tells the identity construction process of the most difficult Japan after the war.